

# 대순사상에 의한 민주주의 실현과 인류 구원의 모색

- 해원상생 사상을 중심으로 -

楊茂木\*

## 目次

- I. 연구의 시각
  - 1. 새 밀레니엄과 인류 파멸의 위기론
  - 2. 동양사상에 구원의 길이 있다
  - 3. 궁극적 구원사상은 대순의 해원상생 사상이 바탕
- II. 절망적 혼돈 극복 위한 홍익형 민주주의 구현
  - 1. 기성 정치권의 성숙된 정치문화 구현
  - 2. 홍익형 정치문화 구현
  - 3. 홍익형 민주주의 이를 대순사상과 해원상생
- III. 해원상생 사상과 홍익형 민주주의
  - 1. 해원상생 사상의 핵심
  - 2. 해원상생 사상과 홍익형 민주주의와의 상관성
  - 3. 해원상생 사상에 의한 홍익형 민주주의 실천 방안
- IV. 결 론

## I. 연구의 시각

### 1. 새 밀레니엄과 인류 파멸의 위기론

파멸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지상낙원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면서 전 지구는 고민에 휩싸여 있는 셈이다.

지난 한 세기 사이에 인류는 지구촌 곳곳에서 200여 번의 전쟁을 치러야

\* 정치학박사, 대진대학교 교수

했고, 그 와중에 수천만 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다. 물론 지구 어느 곳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전체가 전쟁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낀 건 아니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풍요의 세기였으며, 비약적인 발전의 세기였다. 그러면서도 전쟁의 당사자가 아닌 나라들은 평화와 번영을 노래했다. 세기말에 이르러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1천억 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풍요로움은 넘쳐났다.

그러나 21세기의 전쟁은 양상 자체를 달리 할 것이다. 비록 국지전에서 비롯되더라도 가공할 핵무기의 위력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것이다. 또 인도네시아 밀립의 화재가 주변국의 연무 피해로 나타나는 것처럼 일부 지역의 자연 파괴가 지구 전체의 재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핵전쟁이나 환경 파괴와 같은 대재앙과 풍요와 번영의 길을 눈앞에 두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그 선택의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우선 종교적인 면과 정치문화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종교적인 면은 각 개인의 인간성을 선하게 유도하고 심성을 맑게 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 정치문화적인 면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인간의 행동을 선한 쪽으로 유도하고 발전시킨다.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갈림길은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며, 이들은 어느 하나만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에 상호 바람직한 발전 관계를 논구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두 가지 갈림길에 대한 선택이나 종교와 정치문화의 상호 보완·발전이 모두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시작하면서 인류가 내건 상징어는 창조와 희망이었다. 그러나 일부의 희망적인 관측과는 달리 새로운 밀레니엄의 개막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는 새로운 세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횡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세기 인류의 최대 비극이었던 이념 갈등만 해도 그렇다. 이념 갈등은 지난 세기 복지증진과 군비통제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였다. 그 이념 갈등의 역사가 종말을 맞으면서 세계 역사는 진보를 맞는 듯했다. 그러나 이념 갈등 시대에 상존하던 수많은 살육과 전쟁, 핵전쟁의 공포는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동부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 내전 위기

를 겪는 가운데 보스니아 내전이나 동티모르 독립 관련 투표 와중에 보여진 폭력 사태는 전쟁과 살육이 반드시 이념 갈등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11일 인도 인구조사위원회는 인도 인구가 세계 두 번째로 10억 명을 공식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인도는 물 부족과 기아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같은 날 중국의 국무원 수리부는 중국 전역의 668개 도시 중 3분의 2인 400개 이상의 도시들이 심각한 물 부족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수자원 중 90% 이상과 중국 강들의 절반 이상이 무분별한 개발로 오염돼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인구 폭발로 인한 이러한 부작용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돼 왔지만 인도나 중국 당국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었다.

21세기초 인류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식량난과 공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자연 파괴와 공해물질의 심각성은 과멸을 자초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루 평균 23만7천 명이 태어나고, 14만 명이 죽는 현재의 인구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그에 따른 식량 문제의 폭발력은 21세기의 이념 갈등으로 인한 폐해를 능가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는 노령인구의 증가도 심각한 위협이다. 미국 조사통계국 노령화연구과는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왔는데 아시아 지역의 60세 이상 여성 노인인구는 지난해 1억 5천300만명에서 2030년에는 4억 1천800만명으로, 남성 노인들은 올해 1억2천 500만명에서 2030년까지 3억 6천300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최근 자료에서 예측하고 있다.

아시아의 노령화 속도는 생각 보다 훨씬 빨라서 경제위기에 처한 아시아 지역의 자원을 고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자녀 갖기 정책을 펴온 중국의 경우, 노령 인구의 비율은 올해 10%에서 2030년에는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생명공학 기술을 통한 농업 혁명에 실패하면, 동아시아는 21세기중 굶주림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인도 인구의 10억 명 돌파는 그러한 우려를 현실로 보여주는 셈이다.

인구 폭발과 경지 감소, 토양 손실, 농업 용수 부족에 따른 식량 위기는

21세기 들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가장 큰 변수인지도 모른다. 이에 곁들여 환경 오염 피해도 만만치 않다. 전세계 24만여 식물군의 14%인 3만3000여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이상 기후를 만들고 있다. 중남미에선 허리케인 미치로 인해 1만1000명이 숨졌을 정도이고, 이상기후에 따른 세계 경제 피해는 지난 해 890억달러에 달했다는 조사 보고도 있다. 지난 5월 12일 미국 중서부 뉴멕시코주 로스알라모스에서 발생한 산불은 주택 400여 채를 태우며 미국 최대의 핵무기 시설인 국립연구소를 휩쓸고 지나갔다. 방사능 폭발이나 탄약 폭발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준 예인 셈이다.

21세기의 또 다른 상징어는 컴퓨터 혹은 정보화이다. 전세계가 단일 컴퓨터 망으로 연결되어 모든 정보는 세계 어느 곳이든 순식간에 전달된다. 굳이 비행기를 타고 현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화상 전송 시스템과 자료 파일 공유 시스템을 활용해 국제회의와 비즈니스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필리핀에서 유포된 'I Love You'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이메일(e-mail) 바이러스의 예에서 보듯이 컴퓨터의 오용은 전세계 컴퓨터 망을 일시에 마비시키는 가공할 폭발력을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인류의 재앙에 대한 경고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예언서로는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미셸 노스트라다무스의 제세기(諸世紀)가 꼽힌다. 요한계시록은 '일곱개의 봉인(封印)' 부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처럼 변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며 별들은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땅에 떨어진다"고 '진노의 날'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예언서들은 서양의 것이 주류를 이룬다. 20세기에 세계 역사를 주도한 유럽 열강들은 제국주의 팽창의 열기와 함께 20세기의 역사를 열었다. 그 와중에 동양의 여러 나라는 침탈과 식민지 지배의 쓰라림을 겪었다. 유럽에서 시작된 두 번의 세계대전은 전세계를 전쟁과 살육의 비극으로 덮쳤다. 그 후 유럽에서 시작된 냉전은 세계를 양분했고, 자유로운 교류를 차단했다. 그러나 20세기의 마지막 무렵에 유럽의 단일 통화 '유로'

가 출범했고, 그 얼마 전에 냉전의 종식과 공산주의의 몰락이 유럽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 20세기는 유럽인들이 주도적으로 세계 역사를 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독주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새로운 밀레니엄은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서양의 미래학자들은 동양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동양의 문화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동양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류의 구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동양 사상의 정수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 2. 동양사상에 구원의 길이 있다

지난 세기는 서양이 주도한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만큼 이데올로기의 대립 등 집단 이기주의의 성격이 강한 서양 사상으로는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이 불가능함을 인류는 직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양 사상, 특히 동아시아의 학문적 성찰이 현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로 떠올랐다. 자연파괴와 환경문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처방을 뚜렷하게 내놓지 못하는 서양과학 대신 동양 사상이 그 대안이라는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이미 서구적 가치를 뛰어넘은 동양적 직관으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상태이기도 했다. 비록 국내의 자생적인 사상적 성찰이 IMF 체제로 인해 주춤하기는 했지만, 서양 학자들에 의한 동양 연구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미국 하버드대의 물리학대학원은 주역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정하고 있을 정도로 서구의 동양사상 이해 노력은 상당하다.

대표적인 예로 1970년대에 출간된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The Tao of Physics)<sup>1)</sup>의 저자인 프리초프 카프라(Fritjof Capra)는 동양사상의 성찰을 통해

1) Fritjof Capra, The Tao of Physics: An exploration of the parallels between modern physics and Eastern mysticism(Colorado: Shambhala Publ, Boulder, 1975): 이

현대물리학의 한계를 이해하기도 한다. 그는 이 책에서 "동양의 사상가의 세계관은 모든 현상들의 상호 관련성과 자체 조화성을 강조하는 것에서만 아니라 물질의 근본적인 구성요소를 부인하는 것에서도 현대 물리학의 '부트스트랩 철학'<sup>2)</sup>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불가분(不可分)의 전체이며 그 안에서 모든 현상들이 유동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 안에는, 어떤 고정된 근본적인 실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동양사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물질의 '기본적 구성체'(basic building blocks)<sup>3)</sup> 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 없다"<sup>4)</sup>고

성범·김용정 옮김/프리초프 카프라,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서울: 범양사, 1998) 참조.

- 2) 부트스트랩(bootstrap: 구두끈) 철학은 미국의 물리학자 제프리 츄(Geoffrey Chew)가 창시하고 주창한 이론으로써, 자연의 일반적인 상호작용을 철학적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또 S행렬이라는 말로 형식화된 입자들의 특정한 모델을 작성하는 데 그것을 이용했다. 츄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과학적 사고에 혁명을 가져왔고, 보어와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의 해석으로 변화를 가져왔듯이, 20세기 물리학에서 세 번째 혁명을 이룩했다. 소립자에 대한 그의 부트스트랩 이론(구두끈 이론)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으며, 기초과학에 대한 서양적 접근 방법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단절시키고 있다. 부트스트랩 이론은 현대 물리학에 있어서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대한 반론, 즉 자연은 소립자나 근본적인 場과 같은 기본적인 실체로 환원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물리학과를 의미한다. 기존의 철학은 우주란 어떤 근본적인 특성을 지닌 기본적인 실체로부터 구성되었다고 보는 데 반해 부트스트랩 철학은 우주를 단순히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실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사건들의 역동적인 網으로 본다. 즉 부트스트랩 철학은 물질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법칙이나 등식, 원리 등의 근본적인 실체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느 입자도 다른 입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복합체이기 때문에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설이나 고전 물리학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기본 요소로서의 개별적인 입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트스트랩적 자연관은 동양적인 세계관, 즉 자연을 사물이나 실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과 유사하다. 즉 우주란 하나의 상호 연관된 전체이고 그 안의 어느 부분도 다른 부분보다 결코 더 근본적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의 속성은 다른 모든 부분의 속성으로부터 결정된다는, 다시 말하면 상호관계의 전체적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의 사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G. F. Chew, " 'Bootstrap' : A Scientific Idea?", Science, vol. 161(May 23rd, 1968), pp. 762~763.: 이성범·김용정 옮김/프리초프 카프라, 앞의 책, pp. 147~179.
- 3) '기본적 구성체'란 물리적 세계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즉 물리적 세계는 몇몇 원자들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본적 구성체라 한다. 예를 들면 우주는 원자와 핵, 그리고 強粒子(소립자)들 즉 양성자, 중성자, 랩다 입자, 크사이 입자, 시그마 입자, 파이 중간자, 케이 중간자 등의 소립자나 근본적인 場과 같은 기본적인 실체로 구성되었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부트스트랩 이론은 물질을 구성하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의 작은 모래알과 같은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같은 책, p. 309. p. 390.

말하고 있다.

이같은 현대 물리학의 개념은 노자의 『도덕경』 첫머리만 보더라도 잘 나타나 있다. 노자는 “도를 도라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무는 천지의 처음이고, 유는 만물의 근원”<sup>5)</sup>이라고 했다. 그는 무와 유가 이름만 다를 뿐 한 근원에서 나온 것임을 직관으로 알았던 셈이다. 또한 『주역』 <계사전>에는 “역에 태극(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兩儀) 즉 음양을 낳는다”<sup>6)</sup>고 했고, 노자는 도가 기를 통해 음양을 낳는다고 했다. 노자는 또 『도덕경』에서 “도(道)는 하나(一)를 낳고, 하나는 둘(二)을 낳고, 둘은 셋(三)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sup>7)</sup>고 했다.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무위지도(無爲之道)에서 만물이 생성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이 말을 다시 풀면 도는 자연 본래의 근원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셈이다. 공자 또한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어도 물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sup>8)</sup>고 한 것을 보면 옛 중국의 철인들은 자연의 질서와 인류의 질서를 모두 도라고 불러 자연과 인간의 화합을 중요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주역』에는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라고 해 음양의 상호작용이 곧 도라고 했다.

이렇게 보면 서양의 과학은 자연의 탐구에, 동양의 철학은 인간의 완성에 그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산업 문명의 발달은 결국 자연과 인간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게 했고, 동양사상의 자연관은 차츰 중요시되게 되었다.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상대성 이론에서 물체와 공간은 더 이상 분리시킬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아인슈타인은 1905년 빛이 단일한 입자나

4) 같은 책, p. 317.

5) 『道德經』, <第1章>,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無名 天地之始 有名 萬物之母.”

6) 『周易』, <繫辭傳>, “易有太極 是生兩儀.”

7) 『道德經』, <第42章>,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8) 『孔子家語』, 제1권 제4장 ‘大婚解’ 중에 나오는 말. 원래는 “저 해와 달이 동서로 서로 따라서 그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늘의 도(道)이며, 멈춤이 없이 오래 가는 것이 또한 이 하늘의 도이며, 아무 것도 하는 것 없이도 물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의 도이며, 이미 다 이루어져서 저절로 밝은 것 또한 하늘의 도이다”(貴其不已也 如日月 東西相從 而不已也 是天道也 不閉而能久 是天道也 無爲而物成 是天道也 已成而明之 是天道也)로 되어 있다.

흐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에너지 봉지에 들어 있는 에너지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논문으로 내놓았다.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분리되어 뚜렷이 구별된다고 보았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구분이 옳지 않다는 점을 밝혀내고 어느 물체가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면, 그 질량은 광속의 제곱으로 에너지를 나눈 만큼 줄어든다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방정식  $E=mc^2$  을 세상에 알렸다. 아인슈타인은 질량과 에너지가 등가일 뿐만 아니라 서로 바꿀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같은 이론을 통해 우리는 물체란 강하게 응축된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곧 물질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0)</sup> 질량과 에너지는 실제로 호환성이 있음을 입자 가속기 안에서 실증한 사례는 수천, 아니 수만 번이나 있었다.

이는 색(色)과 공(空)의 관계는 서로 배타적인 대립의 상태로서 생각될 수가 없으며, 다만 동일 실재의 양면성으로서 공존하면서 연속적인 협력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色卽是空, 空卽是色)<sup>11)</sup>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만든다. 현대 물리학의 세계 이해처럼, 불교에서 보는 현상계는 끊임없는 생멸의 세계다. 불교에서 말하는 현상계는 공이고 어떤 물질적 실체의 존재도 부정한다. 이른바 ‘제행무상 제법무아’ (諸行無常 諸法無我)가 그것이다. 이는 또한 『화엄경』의 법성계 즉, 「화엄일승법계도」에서 말하는 “하나 가운데에 모든 것이 있고, 여럿 가운데에 하나가 있어 하나가 곧 여럿이며 여럿이 곧 하나이다(一中一切多中一 一卽一切多卽

9) 방정식 이  $E=mc^2$  은 모든 공간과 시간의 측정은 상대적이라는 발견에 기초하고 있다. 즉 아인슈타인의 공간-시간 간격의 제곱이 일정하다는 것으로부터 추론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는 질량에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Lloyd Motz and Jefferson Hane Weaver, *The Story of Physics*(New York: Plenum Publ. Co., 1989): 차동우·이재일 옮김/로이드 모츠·제퍼슨 헤인 위버, *물리 이야기*(서울: 전파과학사, 1992), p. 351.

현대 물리학에서의 상대성 이론은 공간이 3차원이 아니며 시간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양자는 밀접하고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으며, ‘時空’ 이라고 불리는 4차원의 연속체를 구성한다. 이러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은 “공간과 시간은 名目, 생각의 형식, 일상적 관용어에 불과하다”는 동양사상의 개념과 극히 유사하다 하겠다.

10) John Boslough, *Stephen Hawking's Universe*: 홍동선 역/John Boslough, 스티븐 호킹의 우주(서울: 책세상, 1990), pp. 54~55.

11) 色은 空이요, 공은 곧 색이다. 공이 색과 다르지 아니하며, 색 또한 공과 다르지 아니하니, 색인 것이 곧 공이요 공인 것이 곧 색인 것이다.(色卽是空 空卽是色 色不異空 空不異色 受想行識亦復如是.)



—) 12)는 생각과 통한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동양 사상가들의 직관적인 세계관이 현대 물리학의 상대성이론이나 양자(장)이론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해 카프라는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장(場)이라는 개념’ 13)이 나옴으로 해서, 물리학자들은 다양한 장들을 모든 물리적 현상을 통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하나의 장으로 통일시키려고 시도해 왔다. 특히 아인슈타인은 그러한 통일장(統一場: unified field)을 탐구하는 데 그의 여생을 보냈다. 힌두교의 범(梵: Brahman), 불교의 법(法: Dharma Kaya), 도교의 도(道: Tao) 등은 아마도 물리학에서 연구하는 현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현상들의 근원적인 통일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sup>14)</sup>

현대의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오염에 의한 위기적 상황은 더욱더 동양사상의 전체적인 통일적 세계관 내지 자체 조화하는 사상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동양사상의 세계관은 현대 물리학의 세계상과 상당한 유사성

12) 정병조, 정병조의 불교강좌(서울: 민족사, 1997), p. 177.

13) 場 개념은 19세기에 패러데이(Faraday)와 맥스웰(Maxwell)에 의하여 電荷와 전류 사이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이론이다. 아인슈타인의 “우리는 물질이라는 것을 장이 극도로 강하게 집중된 공간의 영역들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와 같이 새로운 물리학에서는 장과 물질 모두를 위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장이 곧 유일한 실재이기 때문이다” <M. Capek, The Philosophical Impact of Contemporary Physics(Princeton, New Jersey: D. Van Nostrand, 1961), p. 319.>라고 한 말은, 물질적 대상은 뚜렷한 실체가 아니라 그 주위 환경과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즉 성질은 세계의 온갖 나머지 것과의 상호 작용의 견지에서만 이해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우주의 근본적인 통일성이 나타난다는 이론과 같다. 이것은 또한 동양 사상에서의, 공허하며 형체가 없으나 모든 현상들을 산출할 수 있는 도의 개념 속에 장의 개념이 함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氣의 개념에도 표시되어 있으며, 空과 그것이 창조해 내는 형상들 사이의 하나의 유사한 역동적인 통일성을 강조하는 사상과 유사하다. 즉, “물리적인 우주는 완전히 연속적인 전체로서, 감촉할 수 있는 물질로 응축된 氣는 어떤 중요한 의미에서 개별화된 것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다른 대상들과 함께 작용을 주고 받는다. 결국에는 음과 양의 두 기본적인 힘의 울동적인 교체에 의존하는 파동이나 진동의 방식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개개의 대상들은 그 본래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세계 조화의 일반적 모형에 통합된다” 는 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하겠다.

W. Thirring, ‘Urbausteine der Materie’, Almanach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vol. 118 (1968), p. 160.

14) 이성범·김용정 옮김/프리츠포 카프라, 앞의 책, p. 235.

을 갖고 있으며, 서양과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희망이 되고 있다.

### 3. 궁극적 구원사상은 대순의 해원상생 사상이 바탕

지금까지 궁극적 인류 구원 사상을 동양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앞에서 말한 물리학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이고 존 올린 전략연구소장인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미국 최고 정치학자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70년대 카터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안보기획조정관과 80년대 미국정치학회 회장, 그리고 학술지 '포린 폴리시' 창간 편집인을 지냈다. 그가 정치학에 관한 저서를 낼 때마다 전세계 학계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상의 주목을 받은 저서는 「제3의 물결: 20세기 후반의 민주화」(1991)와 「문명의 충돌」(1996)이다.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은 술한 토론의 대상이 된 이론으로 학자로서 헌팅턴의 건재함을 다시 한번 과시한 명저로 알려졌다. 냉전 이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은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것이 아니라 동·서양 문명간의 문명충돌 양상을 띠는 것이라는 헌팅턴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찬반 토론을 촉발했고, 지금도 활발한 쟁점을 제공하고 있다. 새뮤얼 헌팅턴 교수가 예견했던 대로 21세기에는 서양문명의 한계를 극복한 동양 문명의 새로운 접목이 21세기 위기 해결의 한 방안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영국은 그 동안 약육강식의 자본주의로 세계를 지배해왔다. 유럽의 사회적 시장자본주의가 일정한 부분을 담당하고 아시아 중진국들의 중상주의가 있었지만 얼마 전 우리가 혹독하게 겪었던 IMF 체제는 여전히 '약육강식적 자본주의'<sup>15)</sup>가 득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5) 요즘의 국제정치에서는 지난 세기의 무력행사와 전쟁 대신에 경제가 그것을 대체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도 경제문제만은 지배할 수 없다. 또한 많은 국가들은 자신들의 안전보다는 복지정책, 경제문제에 더욱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세계적 조류는 군사력이나 전쟁 수행 능력만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국력의 가장 큰 요소가 되었고, 이 경제적 능력은 국제정치의 목적이자 수단이 되었다. 미국의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콧프리 하코트 명예교수의, "오늘의 세계는 세

우리 역시 지금까지 서구적 가치를 최상으로 알고 이의 접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영미형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경쟁과 시장개방의 압력을 가하는 한편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서처럼 정치질서와 문화까지도 지배하려 든다.<sup>16)</sup>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가 이같은 강압적 조건을 거부하고 아시아적 가치를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sup>17)</sup>

---

계화(또는 국제화)라는 이름으로 19세기 말의 제국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화를 “제국주의적 이익을 관철하는 함정” 이라고 한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적 의미를 갖게 해준다. 즉 지금의 세계는 총과 칼을 앞세운 식민지 쟁탈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선진 자본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국제화에 따라 식민통치를 하지 않고도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보급해 자신들의 경제적 수탈과 경제적 초과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기원」을 집필한 미국 시카고대학의 교수인 브루스 커밍스는 미국의 현재의 대외노선을 <후기 제국주의>, <초제국주의>, 또는 <신제국주의>로 규정한다. 이 말은 지난 날 영국처럼 자본가적 제국주의로 대변되는 고전적 제국주의의 의미와는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라는 것이다. 미국의 컬럼비아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잭 스나이더의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팽창 시도는 군부, 재계, 관료 등과 파벌적 이익집단들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이기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일반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국가안보는 팽창을 통해 확보된다는 <제국의 신화>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 1999년 10월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99 서울경제포럼’에 참가한 전경련 국제자문단이 한국의 대외정책, 경제구조 개혁에 대해 공개토론을 가졌다. 그곳에서 리관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서구적 가치와 세계화는 중요하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아시아인이 내릴 일>이라고 하였으며, 사토 미쓰오 일본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상임고문(전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은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응(재정 및 통화 긴축과 즉각적인 구조조정 등)은 <멸절한 소를 죽게 만든 矯角殺牛식 처방>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동아일보, 1999년 10월 23일자; 중앙일보, 1999년 10월 23일자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들은 대개 선진국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일 뿐이라는 생각을 필자도 갖는다.

16) 어느 국가가 세계무역의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들의 네트워크에 도전한다면, 예를 들면 이라크, 리비아, 코소보처럼 미국의 정책에 도전하면 미국은 전쟁을 통해 제재를 가한다. IMF만 해도 그렇다. 1944년에 만들어진 헌장을 보면 IMF는 국제수지에만 간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IMF는 “아시아 국가의 기업, 노동, 재정에 개입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상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적 행태”라 할 것이다.

17) “지난 1998년 11월 15일 말레이시아 팔라렘푸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회의가 있었다. 여기에서 아시아의 두 지도자, 즉 한국의

새 밀레니엄은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한다. 이미 서양의 낡은 틀로는 새롭게 닥치는 환경문제와 인간 문제 등 위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동양사상을 더욱 발전시킨 한국 고유의 구원사상을 바탕으로 인류 구원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순진리의 해원상생 사상이야말로 전통 동양사상을 아우르는 궁극의 구원사상이라 할 수 있다.

해원상생을 얘기하기 전에 이와 밀접히 관련되어 대순진리에서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음양합덕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대순사상은 「대순지침」에서,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sup>18)</sup>고 말한다. 이것은 「주역」 <계사전>에서 말하는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즉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법칙이 바로 도(道)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주

---

김대중 대통령과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가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란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15일 기조연설에서, “말레이시아의 독특한 처방을 그대로 놓아두기 바란다... 처방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대가를 치를 것이고 성공하면 세계가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이라며, 「아시아적 가치」를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마하티르는 가족주의, 근면, 교육열 등의 문화적 배경과 정부주도의 개발독재가 아시아에서 ‘네 마리 용’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하면서 IMF의 처방과 감독을 거부, 아시아의 독특한 문화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음 날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목표로 추진하는 개혁과 개방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IMF의 처방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지도자의 견해가 아주 다름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 두 지도자 중 누구의 견해가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는 것을 유보한다. 그건 앞으로 나타날 「경제성적표」에 따라 자연적으로 분석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楊茂木, “大巡思想과 政治的 民主主義의 實現,” 「大巡思想論叢」-제6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pp. 285~292.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아시아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본 유출에 대한 통제정책을 채택한 지 1년이 된 1999년 9월 1일 현재,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수출의 증대와 수지의 개선으로 경제회생을 이룩했으며, 안정과 성장, 그리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마하티르 총리가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권고, 그리고 세계화와 개방을 내세운 금융시장의 지배논리를 거스르면서 실시한 자본통제 정책은 그 당시 많은 전문가, 들이 당장 큰일날 것처럼 얘기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마하티르의 <마이웨이 경제>는 획기적으로 성공해 세계가 놀라고 있으며, IMF도 지난 달 그의 조치가 적절했음을 시인했다는 사실이다. 중앙일보, 1999년 9월 1일, <국제경제편>: 동아일보, 1999년 9월 1일자 참조.

18)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p. 18.

만물의 모든 변동은 음양의 유행과 소장(消長: 줄어 들고 늘어남) 아닌 것이 없고, 모두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며, 이것을 「일음일양지위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태극은 전체로서의 일(一)이고, 음양은 전체인 일의 나눔이다. 나누는 것으로 말하면 음양의 대립이고, 전체로서 말하면 '일'에 통합된다. 우주 만물은 모두 이러하여 각각 대립상을 가지고 있고 또한 통일상을 가진다. 이것이 역학에서 말하는 “모든 만물은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가진다(物物各一太極)”이며,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이치가 비록 높으나 태극과 무극의 겉에서 나오고, 일용한 사물의 사이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理雖高出於太極無極之表 不離乎日用事物之間)”<sup>19)</sup> 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겠다. 앞에서 말한 물리학과 동양사상의 만남도 바로 같은 맥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대순진리에서는 음과 양이 결합함에 있어서는 그냥 합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매개로 하여 합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천하의 지극한 진리는 인간의 덕행 속에 있는 것이지 결코 언사나 대상에 대한 인식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계사전>에 건은 역지(易知)요, 곤은 간능(簡能)이라 하고 “역간(易簡)하기에 천하의 이치를 모두 깨닫는다”는 말이나, “괘·효의 변동은 사람이 하는 것이요, 그것이 신명날 수 있는 소지는 바로 그 사람의 덕행에 있다”고 한 말이나, “역간의 좋은 점은 지극한 덕과 짝을 이룬다”고 한 말은 모두가 역의 진리가 한갓 천지 건곤에 있지 않고 바로 인간의 마음, 덕행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며, 이런 말들 모두가 음양 감응에는 반드시 덕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음양합덕을 이루는 한편 궁극의 구원을 위한 해원상생이 필요하다. 해원상생이란 원한을 풀어 주고 척을 지지 않으며 남이 잘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개조와 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布德天下)·구제창생·보국안민·지상천국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념이다. 해원, 상생, 보은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순사상은 음양합덕과 함께 해원상생을 강조한다. 대순사상 속에 있는 해원상생

19)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제생: 43.”, 「천경」(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p. 310.

은 바로 인존과 자유, 평등과 사랑, 평화와 통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상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속에 최대한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같다.<sup>20)</sup> 해원상생은 자유·평등·인권의 존중 등과 같은 이념과 가치에 대한 신념이 사회의 규범으로써, 그리고 생활 방법으로 나타날 때 가능한 것이다. 즉 해원상생의 기본 이념이 형식적인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규범으로 제도화되고 행동 양식으로 구체화될 때 그 사회는 물론 나아가 전인류가 진정한 구원을 향해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은 대순진리의 큰 바탕을 이루며 앞서 살펴본 대로 이는 인류 구원을 위한 궁극적 사상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질망적 혼돈 극복 위한 홍익형 민주주의 구현

### 1. 기성 정치권의 성숙된 정치문화 구현

한국 정치는 정당제도, 의회운영 등에서 비민주적인 요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은 민주공화국을 지향하였지만, 실제의 정치 과정에 있어서는 비민주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았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헌정사는 대부분 집권자의 권력 유지 또는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집권자 위주의 헌법 개정으로, 권력자의 자의를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한때는 이러한 헌법에 대한 비판 및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즉 권력의 절대화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유보시켰고 강압하였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과제이며, 정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이라 생각한다.

한편 법의 지배는 재판에 의한 권리 구제를 의미하는데 사법부 역시 행정 권력에 종속되어 독립성을 침해받아 왔다. 즉 입법 사항의 전문 기술화, 법 집행자의 재량권 확대, 입법 내용의 양적 증대, 사법 통제의 제한 등으로 인

20) 대순사상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楊茂木, 같은 논문, 같은 논총집, 참조.

권 보장을 위주로 한 법의 구조적 기능에 회의를 갖게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지난 유신 통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치에 있어서 성숙된 정치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대로 해원상생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 즉 해원상생적 정치의 방안이 제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해원상생적 정치의 실천 방안이란 무엇인가?<sup>21)</sup>

첫째, 원한을 풀어 주는 정치가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사회의 여러 집단들의 원한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원한을 갖고 있는 국민과 집단이 너무나 많은 실정이다. 소득분배와 지역개발의 격차로 인한 불만은 정치권력에 대해 원한을 갖게 만들었다. 국가권력이나 정책적으로 소외되었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피해의식의 공유로 공동의 원한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한 원한으로 지역주의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과거 독재권력에 항거하다 커다란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비민주적 정치체제에서 소외당한 사람들도 원한을 갖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커다란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비민주적인 정치권력에 저항한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한편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집단도 원한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이 빈곤하여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또는 빈곤이 세습된 사람들은 원한을 갖고 있다.

정치권력의 남용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원한을 갖고 있다.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현 정부에서도 특정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집단은 원한을 갖고 있다. 또는 각종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비합법적인 권력행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원한을 갖고 있다. 해원정치를 위해서는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원통해 하거나 억울해 하는 사람들의 원한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21) 해원상생적 정치의 실천 방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楊茂木, 같은 논문, 같은 논총집, pp. 276~305.

둘째, 척을 지지 않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척을 지지 않는 정치를 위해서는 민존정치(民尊政治)를 실현해야 한다. 척을 지지 않는 정치는 앞으로 원한을 갖지 않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정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성 정치의 폐해를 없애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하는 길이 될 수 있다.<sup>22)</sup>

이처럼 근원적인 해결을 통한 성숙한 정치 문화의 구현을 위해서는 진정한 해원상생 정치의 실현을 통해 이를 정치 규범으로 제도화하고 행동 양식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자유·평등·인권의 존중 등과 같은 이념과 가치에 대한 신념이 해원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치 사회의 규범으로서 확립될 때 기성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고 성숙된 정치문화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 2. 홍익형 정치문화 구현

성숙된 정치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다른 논문을 통해 필자는 이미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홍익형 정치문화」<sup>23)</sup>를 언급한 바가 있다. 홍익형(弘益型: public benefit) 정치문화라는 용어는 우리 나라 단군(檀君)의 건국이념, 즉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을 가진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에서, 필자가 원용(援用)한 말이다. 한국 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홍익형 정치문화는 21세기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열어갈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직도 한국은 참다운 민주정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가 많다고 밝혔지만 한국의 정치가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는 등 민주정치가 오도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수천 년을 전해온 국조(國祖) 이래의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한 홍익형 정치문화를 일찍부터 체득하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현실 정치에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외세에 의한 타율적인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치 문화와 접목되지 못하

22) 楊茂木, “大巡思想과 韓國 政治,” 「대순사상논총」-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대순사상학술원, 1996), pp. 247~252.

23) 弘益型 政治文化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楊茂木, “大巡思想에서의 安心과 政治文化의 相關性 考察,” 「대순사상논총」-제7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대순사상학술원, 1999) 참조.



고 서구 지향적인 무비판적 가치 전도가 사회 문화는 물론 정치 문화에서도 지속되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역대 지도자들의 지나친 정치욕과 상극적 정치 행태가 또다른 비극을 연쇄적으로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흥익형 정치문화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치적 사건이나 사물을 분석 평가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관계보다는 남의 이해관계를 더욱 중요시하는, 즉 이기심(利己心)을 떠나 오직 남을 잘 되게 해야한다는 이타심(利他心)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말한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대순 사상의 「훈회」(訓誨)에서, “남을 잘 되게 함은 상생대도(相生大道)의 기본 원리요 구제창생(救濟蒼生)의 근본 이념이라. 남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성사(成事)에는 타인과의 힘을 합하여야 된다는 정신을 가져 협동생활에 일치 협력이 되게 하라”<sup>24)</sup>는 말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 “남을 잘 되게 하라”는 말의 참뜻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잘 되는 것이며, 자기가 잘 되려면 먼저 남을 잘 되게 해야 한다는 뜻일 게다. 그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의 성사에는 남과 더불어 같이 협력하는 협동정신을 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권자이건 피집권자이건 자기가 속해 있는 정치 체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갖고 있음은 물론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지배복종 관계가 아닌 진정한 자유 평등 관계를 전제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즉 그 나라 사회의 구성원들은 너의 일 나의 일 할 것없이, 그리고 일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모두 자신의 일로 생각하게 되며, 하나같이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허무한 남의 꾀임에 빠지지도 않게 되며, 서로가 당치 않는 허욕도 갖지 않는 정신과 마음을 갖게 되며, 모두가 안심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또 국가적 수준의 정치에 있어서도 정치를 하는 지도자와 피지도자 모두 솔선수범하게 됨으로써 전국적인 수준에서 국민적 연대의식과 일체감은 완전하게 조성될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이상세계인 유토피아와 선경사회도 자연적으로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24)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pp. 20~21.

그러나 현실의 정치문화는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형태만 띠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상이한 정치문화가 혼재(混在)되어 있다. 같은 정치제도라도 정치문화가 다르면 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된다. 미국의 정치학자 알몬드와 버어바(G. A. Almond and S. Verba)는 정치문화를 미국·영국·독일·이태리·멕시코 등 5개국을 대상으로 그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루면서, 지방형(地方型) 정치문화는 전통적인 정치체제와 합치되고, 신민형(臣民型) 정치문화는 집권화된 권위주의적 체제와 부합되고, 참여형(參與型) 정치문화는 민주적 정치체제와 상승(相承)된다고 하였다.<sup>25)</sup> 그러나 참여형 정치문화도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정치문화는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정치문화는 모두 인간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알몬드와 버어바가 분류한 정치문화는 만약 우리가 순자(荀子)의 성악설, 즉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선한 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人之性惡 其善者僞也)<sup>26)</sup>라고 한 사상을 염두에 두고 받아들인다면 옳은 분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주장한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sup>27)</sup>과 “남을 잘 되게 하라”는 대순 사상, 그리고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단군의 흥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분류한 흥익형 정치문화가 인간이 희구하는 정치문화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그러한 정치문화가 그 나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인간 생활에 과급되어 충만할 때 개인의 안정은 물론 그 나라 사회가 안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양합덕을 통한 개인의 안정과 해원상생을 통한 사회의 안정은 더 나아가 인류의 구원으로까지 확대된다.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은 대순진리의 큰 바탕을 이루는 만큼 인류 구원의 궁극 사상으로서 대순진리를 논구하는 것은 다가올 새 밀레니엄을 인간의 이상세계로 만들어 마침내 선경사회를 이

25) G. A. Almond and S. Verba, *The Civic Culture: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3), pp. 17~20.

26) 荀子 哲學의 근본이 되는 사상인 ‘性惡說’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楊茂木, “大巡思想에서의 安心과 政治文化의 相關性 考察,” 「대순사상논총」-제7집, pp. 208~213. 참조.

27) 孟子 哲學의 근본이 되는 사상인 ‘性善說’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楊茂木, 같은 논문, 같은 논총집, pp. 202~208. 참조.

를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 3. 홍익형 민주주의의 이룰 대순사상과 해원상생

이제 보다 구체화시켜 앞서 말한 홍익형 정치문화에 바탕을 둔 홍익형 민주주의는 어떤 방법으로 실천 가능한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인류의 구원과 후천선경을 말해온 증산은 일찍부터 이론과 실천으로 방법론을 제시해왔다. 대순진리에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한다.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 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sup>28)</sup>

증산의 이러한 사상과 행동은 우리 민족정신의 정수이기도 한, 바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단군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오는 10월 3일은 제4333주년 개천절이다. 이 날 국조(國祖) 단군은 이 땅에 고조선을 열고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 건국 이념이 ‘널리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이었다. 단군은 고조선이라는 국가를 통하여 이 홍익인간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며, 나아가 전세계 인류에 퍼뜨려 인류공영을 하려고 하였다. 한국은 1945년 해방되던 해에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을 설정했으며, 이는 이후 교육법 제정 때도 채택돼 한국의 교육이념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다. 문교부는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채택하며 “홍익인간은 우리 나라 건국이념이기는 하나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 기본정신과 완전히 부합되는 이념이다.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정신의 정수이며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되는 전 인류의 이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채택 동기를 밝히기도 했다. 개천절은 국조 단군을 기리며 단군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창시한 것을 되새기는 기념일이라 할 수 있다.

28)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예시: 9.”, 『전경』(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89), p. 313.

『명심보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즉 요순 때 백성들이 지어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해 뜨면 나가 일하고 해 지면 들어가 쉬네. 밭 갈아 먹고 우물 파서 물 마시니, 임금의 힘이 내게 무엇이 있나”<sup>29)</sup> 라는 이야기다. 이 노래 가사를 음미해 보면, 요 임금이나 순 임금이 어진 정치로 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나 이것을 표면에 나타내서 백성들에게 알리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안정과 평화로움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요 임금이나 순 임금은 순수한 자신의 양심과 도덕심에서 어진 정치를 펴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백성들에게 시혜(施惠)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한국이 보다 발전된 민주정치를 성취하여 요순시대와 같은 평화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홍익형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 쇄신을 이루고 사회 기풍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같은 홍익형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서로 척을 짓지 말고, 원한을 풀어 주고 서로 도와주는 해원상생의 생활을 해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대순진리의 기본 사상이며 모든 인류 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정당과 정치가들도 대순진리를 바탕으로 한 해원상생적 정치를 할 때 민주정치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해원상생을 바탕으로 인류 공영의 뜻을 펼친 대순진리는 한국은 물론 동양권, 나아가 전세계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류 구원의 사상이 아닐 수 없다.

### Ⅲ. 해원상생 사상과 홍익형 민주주의

#### 1. 해원상생 사상의 핵심

해원사상의 핵심은 이 사상이 홍익형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인간사회는 유사 이래 대립과 갈등, 반목과 질시, 부조

29) 이기석 역해, 『명심보감』 (서울: 홍신문화사, 1996), p. 83.: “日出而作日入而息耕田而食鑿井而飲 帝力何有於我哉.”

리, 투쟁, 전쟁 등으로 개인과 사회가 고통스럽고 때로는 파멸을 당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 전체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인간은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합리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만들어 왔다. 인간이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는 예절과 윤리, 법 등이 있다. 인간사회가 만약 이기적 심성에 의해서만 유지된다면, 약육강식의 무질서로 인하여 약자는 강자에 의해 피해를 보고 희생만 당하게 된다. 이러한 생활은 사회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서는 생존까지도 불가능해 질 수 있다.

인류가 평안하고 화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인간사회가 이러한 불행과 갈등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뜻을 이루지 못하여 심리적으로 항상 불안해 하고 원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인하여 서로 척을 짓고 서로 원한관계가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척과 원한 등을 풀어 갈등과 대립이 없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려는 노력이 바로 해원이다.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원한을 해소할 때 상생은 가능하다. 대순사상에 따르면 선천시대에는 서로 자기가 잘되기 위해 노력하는 경쟁으로 원한이 많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빌어주고 도와주는 해원상생의 후천시대에는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한다. 해원상생이 되지 못하면 개인이나 사회, 국가나 국제 관계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해원상생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필요한 윤리 규범이라 생각한다. 윤리 규범 중에는 상위규범도 있지만 인간 사회의 윤리 규범 중에서 기본적인 이고 변화되지 않는 윤리 규범으로서 항상 존중되어야 할 것이 해원상생 사상이라 할 수 있다. 해원과 상생의 의미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원상생은 인간생활의 기본 규범이며,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실천해야 할 사상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상생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회 안

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 국가내에서 해원상생이 실현되지 않으면 내란이 발생하여 국가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국가와 국가간에 서로 원한을 갖게 되면, 적대국으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게 된다. 따라서 전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더욱 더 인간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홍익형 민주주의를 실천함에 있어 해원상생이 그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해원상생을 바탕으로 한 대순진리가 예상되는 인류의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근본 사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원과 상생이 바탕이 되어야만 조화로운 세계의 형성과 순환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2. 해원상생 사상과 홍익형 민주주의와의 상관성

그렇다면 해원상생 사상과 홍익형 민주주의와의 상관성은 어떻게 얘기될 수 있는 것인가. 먼저 개인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사회에서 옳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사회 속의 한 인간으로 성장해 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많은 욕구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성장을 통해 알아간다. 개인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으로 공통된 습관, 신념, 행동, 양식 등을 습득하고 이러한 가치 체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 사회의 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살아간다.

개인의 삶은 이처럼 그 나라 사회의 정치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면 그 나라 사회가 열린 사회인가 아니면 닫힌 사회인가, 정치문화가 민주적인가 아니면 독재적인가 등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인간의 삶도 행복도 자유도 모두 철저히 국가 사회에 의존한다. 물론 그 나라 사회의 정치문화가 전체주의 사상에 의해 통제되어 순응과 복종을 강요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개인의 자발성과 독창성 그리고 실행과 진리에 대한 탐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주의 사상이 충만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체로 대중적이고 조직적인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치가 경제, 문화와 일체가 되어서 사회구조를

거의 전체적으로 지배한다.

따라서 해원상생 사상은 산업사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와 일체를 이루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상적 기반이 된다. 홍익형 민주주의는 해원상생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은 물론 이웃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상생적 실천 논리를 제시하는 셈이다.

해원상생을 하지 못한 개인들은 원한감정을 갖게 되는데 이같은 척과 원한은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신병까지 앓게 하여 인간을 파멸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해원상생을 하지 못하면, 집단적 투쟁이나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 사회 문제는 대부분 사회내의 집단들이 이기적 태도로 자신들만을 위한 행동을 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이기적 태도는 다른 집단에 피해를 주게 되고, 이러한 피해는 원한감정을 갖게 하여 상생이 아니라 상극으로 갈등상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해원에서 출발하여 사회는 물론 인류애 차원의 해원으로 승화, 발전될 때 개인의 구원과 함께 인류의 구원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이상세계가 이 땅에 이뤄지도록 하려면 해원상생 사상을 바탕으로 한 홍익형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3. 해원상생 사상에 의한 홍익형 민주주의 실천 방안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과 부정부패, 부패와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 구조화되고 체계화되어 있어 국가 공권력의 사정권을 이미 넘어선 지 오래다. IMF관리체제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총체적 부정부패가 꽃피워진 것과 다름없다. 다행히 우리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맸고, 위기를 극복할 자신을 얻게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발상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할 때다.

새로운 정치 문화의 창조와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건설, 그리고 선한 의지를 지닌 개인들의 결합을 통해 국가 재건과 민족화합을 이룬다면 21세기 세계 일류국가의 꿈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인간 개조와 새로운 문화의 창출을 이루는 일은 제도 개선뿐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자세까지도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홍익형 정치문화를 통한 올바른 민주주의의 실천 방안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삶의 가치 창조나 행복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수립한다. 인간은 타인과의 조직이나 집단을 이루며 이 집단을 통해 행복과 불행을 맞본다. 인간은 어떤 조직과 집단에 속해야만 고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불화, 시기는 물론 만족을 모르는 소유욕과 명예욕, 권력욕에 휘말리게 된다. 이 때문에 인간 사회는 분열과 갈등, 폭력과 투쟁의 순환과정을 되풀이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 윤리관 등이 상실되고 서구화되어 많은 사회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간의 단절, 노년층에 대한 홀대, 가족제도의 핵가족화와 기능의 변화 등으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계층이 증가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의 확산 등으로 원한이 급증하고 있다.

결국 한국 사회는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 매우 많은 것이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불만을 가진 계층이 대부분이고 불안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불안과 원한 감정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신과의 관계 등에서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 문제는 새로운 윤리 규범을 필요로 한다.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윤리 규범은 해원상생이라 생각한다. 해원상생 사상은 인간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원상생은 오늘날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사회 구조를 화합의 정치로 이끌 수 있는 시안이 되는 셈이다. 인류 사회의 원한관계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원상생의 원리를 따라야 하겠다.

이렇게 대순사상을 바탕으로 개인의 혁신이 이루어지면, 정치 체제의 변화까지도 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인간은 정치생활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



와 가치를 실현하고,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며 해소하여 조화로운 삶을 이루고 있다. 근대 민주정치가 발전하기 전까지는 일반 국민들은 통치권자의 지배의 대상이었지, 스스로의 의사와 결정에 따라 정치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근대 이후 정치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계층이 정치생활의 주체로 등장하였고, 일반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민주 정치제도가 발전하여 왔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고, 다양한 국민 의사를 통합하고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민들의 능력과 태도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존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의 안정과 발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곧 해원상생의 이념인 것이다. 즉 민주주의와 해원상생은 인간 존중의 사상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간 존중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자기 자신의 것 못지 않게 존중하는 것이다. 인간 존중은 시민사회의 질서를 이루는 기초인 평등과 정의의 원칙을 내면화한 덕목이다. 대순사상에서도 인간이 없으면 천지도 하느님도 의미가 없으며, 우주의 주인은 인간으로 보고 있다. 천지일월도 인간이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한다.

또한 해원상생은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고 극대화하고 있다. 원한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다. 원한을 해소하고 상호간에 존중하고 화합적 관계를 갖는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민주 정치에서 보장하는 자유란 방종이 아니라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나의 자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야만 한다. 즉 민주 정치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해원상생적 자유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화합하면서 자유로운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한편 해원상생은 사회에서 소외된 열등 계층의 원한을 풀어주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에서 우월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줄 때 척을 짓지 않고, 원한을 풀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즉 해원상생은 민주 정치의 평등원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신분적 특권을 배제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평등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해원상생 사상을 통한 홍익형 민주주의의 실천은 새로운 실천의식을 요구한다.

한국은 모든 정치가와 정당들이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에 대한 논리 전개를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해왔기 때문에 홍익형 민주주의의 도입은 우리 정치 문화 발전에 큰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극히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형태로 발전되어온 왜곡된 민주주의의 형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정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익형 정치문화에 바탕을 둔 홍익형 민주주의의 실천이 중요하다.

## IV. 결 론

지금까지 새로운 세기를 맞아 팽배한 위기 의식의 원인과 해결 전망을 알아보았다. 또한 동양사상이 구원이라는 사실과 동양사상과 우리의 전통 홍익인간 사상을 포괄하는 대순진리의 해원상생 사상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대순진리는 동양사상을 아우르는 인류구원 사상으로서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한국의 정치발전이나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순사상은 세기말의 위기에 빠진 세계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증산은 선천시대는 천상세계, 인간세계, 자연세계 등 삼계가 원한으로 맺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간 사회는 상극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한으로 인한 참혹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천지 도수를 바로 잡고, 해원을 통한 상생으로 선경을 만들 수 있는 조화정부(造化政府)를 세우겠다고 하였다. 천지 도수를 바로 세워서 상극세계가 아닌 삼계가 상생할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속에 최대한으로 실현

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개인은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일정한 불가양(不可讓)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은 일반 동물이 자신의 생존과 생식(生殖)이라는 생리적 욕구 충족을 위해 활동하는 것과 달리 끝없는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좀처럼 그 욕망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도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 사회에 개인적 자유, 시민적 자유, 사회적 자유,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의 목적과 질이 달라진다. 따라서 합리적,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구조 속에 살고 있고, 개인과 개인간의 불화·반목이 없다면 인간은 최대한의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불화·반목을 없애줄 수 있는 정치가 바로 해원상생적 정치이다. 척을 짓지 않으며 원한을 풀어 주며, 남을 잘 되게 하는 올바른 마음을 갖고 서로를 도와주는 가운데 상호 조화를 이루는 해원상생적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구현하고 자아 실현에 필요한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이념 구현도, 한국 민주정치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도 이러한 해원상생적 정치 논리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해원은 척을 짓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민주정치는 본질적으로 국민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치권력이 형성되고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제도이다. 이러한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척을 지지 않는 정치이다. 한편 상생적 정치는 남이 잘 되게 하는 정치로서 공존 공생의 정치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여야간에 대화와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극한적 대립과 경쟁만이 존재하는 정치로서 상생적 정치가 아니라, 상극적 정치만이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생적 정치는 정치 집단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대 정당과 반대 입장에 있는 정치가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치적 불만과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다.

한국이 보다 발전된 민주정치를 성취하여 요순시대와 같은 평화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홍익형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 쇠신을 이루고 사회 기풍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같은 홍익형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서로 척을 짓지 말고, 원한을 풀어 주고 서로 도와주는 해원상생의 생활을 해야 하겠다. 그리고 정치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정당과 정치가들도 해원상생적 정치를 할 때 민주정치는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상생적 정치이며 이것은 공존 공생의 정치라 할 수 있다. 즉 홍익형 민주주의가 제대로 행해져야 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선천세계의 부조화와 불균형으로 발생된 분열과 혼란, 대립과 갈등, 불안과 저항 등도 사라지고, 인간세계는 질서와 안정, 설득과 이해, 관용과 토론, 승복과 합의 등으로 이루어져 이상적인 인류 사회, 즉 후천시대의 선경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미래가 과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선경사회를 이룰 것인지 하는 선택권은 인간에게 있다.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환경 파괴는 머지 않아 지구 대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온 반목과 질시도 또한 인류의 미래를 위협으로 유도할 것이다. 종교와 정치문화의 상호 보완·발전을 통해 선경사회를 이루는 길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을 강조한 것이 대순진리이다.

이처럼 대순사상은 궁극의 구원사상으로서 새 밀레니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이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순사상을 바탕으로 한 해원상생 사상이 중심 사상으로 자리잡아야 하며, 이것은 인류 발전을 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저 서

가. 한 국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전경(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이기석 역해, 명심보감(서울: 흥신문화사, 1996)

이성범·김용정 옮김/Fritjof Capra,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서울: 범양사, 1998)

이희재 옮김/Samuel P. Huntington, 문명의 충돌(서울: 김영사, 1997)

정병조, 정병조의 불교강좌(서울: 민족사, 1997)

차동우·이재일 옮김/Lloyd Motz and Jefferson Hane Weaver, 물리 이야기(서울: 전파과학사, 1992)

홍동선 역/John Boslough, 스티븐 호킹의 우주(서울: 책세상, 1990)

『道德經』 『周易』 『孔子家語』 『孟子』 『荀子』

나. 서 양

Fritjof Capra, The Tao of Physics: An exploration of the parallels between modern physics and Eastern mysticism(Colorado: Shambhala Publ, Boulder, 1975)

G. A. Almond and S. Verba, The Civic Culture: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3)

John Boslough, Stephen Hawking's Universe

Lloyd Motz and Jefferson Hane Weaver, The Story of Physics(New York: Plenum Publ. Co., 1989)

M. Capek, The Philosophical Impact of Contemporary Physics (Princeton, New

Jersey: D. Van Nostrand, 1961)

## 2. 논문

- 림영창, “陰陽合德의 新世紀的 意義,” 「21세기와 大巡思想」: 제1회 대순사상학술대회(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楊茂木, “大巡思想과 韓國政治,”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 , “救援 眞理로서의 陰陽合德과 民主主義,”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 “天地公事와 民主主義,”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 “救援思想으로서의 神人調化,” 「대순사상논총: 제3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 “통일 기반 사상으로서의 解冤相生,”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 , “宗教와 文學을 통한 道通眞境 思想의 考察,”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 “大巡思想과 政治的 民主主義의 實現,” 「대순사상논총: 제6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 “大巡思想에서의 安心과 政治文化의 相關性 考察,” 「대순사상논총: 제7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이항녕, “21세기와 大巡思想,” 「21세기와 大巡思想」: 제1회대순사상학술대회(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 鄭大珍, “大巡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 , “陰陽合德의 理解,”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 “解冤相生의 理解,”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曹泰龍, “神人調化를 통해 본 修道의 意味,” 「대순사상논총: 제3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 “道通眞境의 實相,”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G. F. Chew, “ ‘Bootstrap’ : A Scientific Idea? ”, *Science*, vol. 161(May 23rd, 1968)

W. Thirring, ‘Urbausteine der Materie’, *Almanach der O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vol. 118 (1968)

### 3. 기 타

동아일보, 1999년 9월 1일.

동아일보, 1999년 10월 23일.

중앙일보, 1999년 9월 1일.

중앙일보, 1999년 10월 23일.